

푸에르토리코 소설 속의 한국전쟁*

송병선(울산대 스페인·중남미학과)**

- I. 들어가는 말
- II. 미국 문학과 푸에르토리코 문학과 한국전쟁
- III. 푸에르토리코 내에서 한국전 참전의 정치적 함의
- IV. 『불과 공기』: 한국전쟁과 푸에르토리코의 내면적 실존
- V. 『전쟁 전에』: 공식 역사와 비공식 역사의 대립
- VI. 「열 수 없었던 납 상자」: 식민국가의 애환
- VII.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현대 라틴아메리카 소설에서 역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시모 멘튼(Seymour Menton)은 『라틴아메리카의 신역사 소설 *Latin America's New Historical Novel*』에서 역사를 바탕으로 서술되는 현대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밝힌다. (1) 현실이나 역사의 본질을 탐지하기 불가능하며, 역사는 순환적으로 되풀이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하여 뜻밖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2) 생략과 과장과 오기(誤記)를 통해 역사를 왜곡한다. (3) 월터 스코트의 전통적 역사소설과는 달리 허구적 주인공들이 아닌 역사적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7-332-A00280)

** Byeong-Sun Song(Department of Spanish, University of Ulsan, avionsun@mail.ulsan.ac.kr), "The Korean War in the Puerto Rican Novels".

으로 유명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사용한다. (4) 화자가 자기 작품의 창작과정을 언급하는 메타픽션의 성격을 띤다. (5) 다른 작가의 작품이나 인물을 삽입하면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6) 바흐친의 대화적 상상력 혹은 카니발 개념을 드러낸다(Menton 1993, 22-24).

이와 같은 특징은 기존에 존재하는 역사적 자료들을 소설 속에 통합하면서 이루어지는 대화적 상상력의 특징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서술 과정은 현존하는 지배담론, 즉 공식역사에 의문을 던지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식민과정에 의해 강요되고 유지되어 왔던 고정된 사고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현재화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현대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역사의 재의미화’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역사적 자료를 현재의 시각에서 새롭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¹⁾.

본 글에서는 역사 자료인 한국전쟁이 푸에르토리코 문학에 어떻게 통합되고 투영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재의미화 되는지 살펴보고 한다. 즉, 미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하는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의 경우가 푸에르토리코 소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비롯하여, 희생자나 그들의 가족 혹은 참전용사들이 소설 속에서 수용되는 방식이 미국 정부의 지배담론과 어떤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학계에서 한국전쟁은 주로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참전의 배경과 파병 과정 및 파병 이후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실정이다.²⁾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출간된 한국전쟁 관련 서적은 주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증언 및 기록에 바탕을 둔 회고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문학 자료를 조사해보면, 한국 전쟁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이용되고

1) 라틴아메리카 역사소설의 특징에 관해서는 송병선(1997)을 참고할 것.
2)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차경미(2004)의 박사학위논문이 있으며, 최근 해외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Tirado Mejia(1985)와 Lynn Coleman(2006)의 글을 들 수 있다.
3) 대표적인 회고록으로는 Alvaro Valencia Tovar(1992), Alberto Ruiz Novoa(1956), Gabriel Puyana Garcia(1993) 등의 책이 있다.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한국전쟁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는 전혀 연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문학연구자들의 조명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체계적인 연구는 시도조차 안 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이 주로 푸에르토리코나 콜롬비아, 혹은 치카노 문학 등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국가이거나 혹은 연극처럼 소외된 장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미국 자치령인 자유연합주(Estado libre asociado)를 구성하는 푸에르토리코 인들은 미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다. 특히 그들은 미국 제65보병연대의 주축을 이루어 아홉 개의 중요한 전투에 참가했다. 대표적인 전투로는 군우리전투(1950년 11월 26일 - 12월), 장진호전투(1950년 11월 27일-12월 11일), 지평리 전투(1951년 2월 13일-16일), 800고지전투(1951년 5월 16일-19일), 불모고지전투(1952년 6월 6일-29일) 등을 들 수 있다⁴⁾. 하지만 미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까닭에 한국전쟁 전사에서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의 역사는 제 65보병연대의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 독립국가의 군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자체 내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은 사뭇 다르다. 특히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의 한국전 과병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푸에르토리코 문학에서는 한국전쟁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를 들자면, 현대 라틴아메리카 단편소설 작가로 명성이 높은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 José Luis González의 「화염 속의 관목El arbusto en llamas」(1953)과 푸에르토리코 병사의 유해송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열 수 없었던 납 상자Una caja de plomo que no se podía abrir」(1952)가 한국전쟁을 주요 소재로 삼은 작품으로 유명하다. 또한 에밀리오 디아스 발카르셀 Emilio Díaz Valcárcel의 「쓸모없는 피Sangre inútil」(1955)와 단편소설집 『공격El asedio』(1959)과 『12월의 심판El proceso en diciembre』

4) 이에 관해서는 국가보훈처(2006), 『미군참전사』를 참고할 것.

(1963)에 수록된 다수의 단편도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 푸에르토리코의 노벨문학상 후보자로 추천된 엔리케 A. 라게레 Enrique A. Laguerre의 『불과 공기 *El fuego y el aire*』(1970) 역시 한국전쟁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는 소설이다. 한편 2002년에 출간된 호르헤 펠리시아노 루이스 Jorge Feliciano Ruíz의 『산의 악마들 *Los diablos de las montañas*』과 2005년에 발표된 호세안 라모스 Josean Ramos의 『전쟁 전에 *Antes de la guerra*』 역시 제65보병연대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작중인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전쟁은 한국이라는 경계를 넘어 푸에르토리코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한국전쟁은 푸에르토리코의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이 국지전이 아닌 국제전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정치·역사·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교 문화적 접근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본 논문은 이런 공백의 일부를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의 단편과 엔리케 A. 라게레, 그리고 호세안 라모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이 푸에르토리코 소설계에서 어떻게 수용되었으며, 어떻게 참전을 합리화한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공식 담론을 해체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II. 미국 문학과 푸에르토리코 문학과 한국전쟁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이 미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관계로, 한국전쟁에서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의 역할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문학작품을 통해 미국인들과 푸에르토리코인의 관심을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푸에르토리코 문학은 미국 문학의 범주 내에서도 아니라 개별 분야로 다루어져야 한다.

존 제이콥 John Jacob(1997)은 20세기에 일어난 대부분의 주요전쟁

과는 달리, 한국전쟁은 미국의 문학 작품 속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언한다⁵⁾. 사실 한국전쟁에 관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국 문학 작품은 전쟁이 끝난 후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발표된다. 또한 한국 전쟁에 관한 가장 훌륭한 문학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소설들도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던 미국 병사들이 전쟁이 종식된 후 한국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쓴 것이지, 전문 문학 작가에 의해 발표된 것들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한국전쟁이란 주제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많이 다루어졌지만⁶⁾, 정작 미국 작가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것이다. 이런 침묵에 관해 제임스 존스 James Jones는 제2차 세계대전이 대중적이며 애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은 무엇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⁷⁾ 마침내 한국에는 위태위태한 상태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한국전쟁은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국전쟁을 미국이 패배한 첫 번째 전쟁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1950년대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번영과 만족의 시기였고, 따라서 작가들은 미국이 패배한 최초의 전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전쟁은 베

-
- 5) 정연선(2003) 역시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국전쟁은 미국소설작가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의 많은 작품들에 비해 한국전쟁은 그렇게 많은 소설작품들을 생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952년 전쟁이 한창 계속되던 때부터 1960년대 말까지 약 60여권의 소설들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고 오히려 한국전쟁 50주년이 되는 2000년 전후로 해서 또한 많은 소설들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권의 소설도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1차 대전 소설인 『무기여 잘 있거라』와 같은 문학적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는 작품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159-160)
 - 6)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할리우드 영화로는 로버트 알트만 Robert Altman 감독의 <매쉬 M.A.S.H.>(1970), 마크 로브슨 Mark Robson 감독의 <원한의 도곡리 다리 The Bridges at Toko-Ri>(1954), 조슈아 로간 Joshua Logan 감독의 <사요나라 Sayonara>(1957), 딕 포웰 Dick Powell 감독의 <헌터스 The Hunters>(1958), 버즈 컬릭 Buzz Kulik 감독의 <썬전 라이커 Sergeant Ryker>(1968) 등이 있다.
 - 7) 이 부분을 비롯해 이후 설명되는 미국 문학 내에서의 한국 전쟁 수용에 관한 이후의 내용은 전적으로 John Jacob(1997)의 의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트남 전쟁처럼 대중적이지 못했다. 한국전쟁은 거의 시위에 불꽃을 당기지 못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는 강력한 감정을 야기하지도 못했고, 베트남 전쟁처럼 반전 감정도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인들은 한국 전쟁을 결과와 목적이 불분명한 전쟁으로 바라본다. 많은 미국인들은 세계 평화의 유지자였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서술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킨다.

반면에 미군에 소속되어 참전한 푸에르토리코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가령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의 「화염 속의 관목 *El arbusto en llamas*」(1953)과 푸에르토리코 병사의 유해송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열 수 없었던 납 상자」(1952)는 한국전쟁에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되었으며, 에밀리오 디아스 발카르셀의 「쓸모없는 피」(1955)와 단편소설집 『공격』(1959) 역시 한국전쟁이 종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푸에르토리코 문학과 한국전쟁의 관계는 미국과 한국전쟁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비롯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유명 작가들이 아직도 한국전쟁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미국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과는 달리 푸에르토리코의 당시 현실에서 한국전쟁은 많은 화제가 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삶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음을 뜻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과병과 관련된 당시 푸에르토리코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점검하여 당시 한국전쟁에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어떻게 수용이 되었으며, 미국정부의 공식 담론과 어떤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푸에르토리코 내에서 한국전 참전의 정치적 함의

푸에르토리코 병사들로 대부분 이루어진 제65보병연대에 관한 기록을 한국전사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푸에르토리코 군인들이 미군이라는 신분으로 참전하였고, 푸에르토리코와 미국이 식민지적 주종관계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전 관련 서적에서는 제65연대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단지 James F. Schnable(1990)이 저술한 『韓國戰爭: 미국합동참모본부사』에만 비교적 긴 언급이 등장한다.

처음에는 제3사단을 9월 중순까지 극동군사령관의 반격계획 시기에 맞게 극동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전투병력 보충의 흐름을 바꾸고 일반예비에서 추가적인 병력 차출이 필요할 것이며, 비록 병력이 회복되더라도 그 사단이 몇 개월간은 전투준비를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육군성은 대안을 발견해냈으며, 콜린스 장군이 8월 10일에 이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시하였다. 그 사단은 여러 부대가 추가되고 병력의 추가 보충에 의해 증강되었으나 아직도 1개 연대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포트 베닝에서 극동군사령부를 목표로 선적한다. 이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제65연대를 제3사단의 일부로서 극동으로 직접 파견한다. 제65연대가 떠난 지역은 연방근무(Federal Service)로 소집된 푸에르토리코 주방위군에 의해 점령되도록 한다. 그러나 제65연대는 1개 대대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파나마 주둔 제33연대의 1개 대대를 그와 함께 근무하도록 극동으로 파견한다는 것이다.” (Schnable 1990, 154)

유엔이 북한군의 남침에 반대하여 미군을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파견하기로 하자, 워싱턴에 있던 푸에르토리코 주재 장관⁸⁾인 안토니오 페르노스 이세른(Antonio Fernós Isern)은 따로 징병을 하지 않더라도 7만 5천명의 병사를 보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밝힌다 (Asencio Camacho 2005, 9). 이것은 유엔국가들이 한반도에 파견한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다. 8월 첫 주에 지원병을 모집한 후

8) 미국의회에서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은 없다.

당시 주지사인 루이스 무뇨스 마린(Luis Muñoz Marín)은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에게 자원하여 참전하도록 이렇게 부탁한다.

푸에르토리코는 삶이라는 힘든 문제와 싸우면서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힘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위협과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Curbelo 2004, 20 재인용)

그로부터 보름 후, 제65연대 병사들의 애인과 어머니와 아내들은 병사들이 승선한 ‘바다의 스라소니’라는 이름의 ‘마린 링크스 Marine Lynx’ 호에서 「병사들에게 작별을 고하러 왔다」는 노래 속에 과묵히 배웅한다. 그리고 주지사 루이스 마린은 거대한 군함 앞에서 제65연대 병사들에게 연설한다. 바로 푸에르토리코의 여당이었던 민주민주당(Partido popular democrático)이 추구하던 새로운 정치질서의 은유이기도 했던 이 연설문은 보안을 이유로 ‘마린 링크스’ 호가 출발한 지 2달이 지나서야 신문에 게재된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영혼 속에 왜 우리가 싸우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웁니다…… 지상에 사는 인간의 투쟁은 빈곤과의 투쟁입니다. 경제적 빈곤, 지식의 빈곤, 지혜의 빈곤과의 싸움입니다. 지혜란 방법과 힘을 알고서 설명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해력과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남자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Curbelo 2004, 21 재인용)

이것은 루이스 무뇨스 마린이 당시 추구하고 있던 새로운 국가, 즉 자유연합주라는 미국의 자치령 추구하고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전쟁은 푸에르토리코 시민의 정복 이미지, 즉 피를 흘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상징으로 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푸에르토리코 지도자가 한국전에 참전하겠다고 급히 성명을 발표한 이유에는 푸에르토리코의 여러 국내 사정이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이후 어떤 정치적 반향을 일으켰는지도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한국전 참전은 푸에르토리코라는 섬을 군사화 하겠다는 루이스 무뇨스 마린 주지사의 공개적인 태도를 보여줌과 더불어 미국에서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주지사의 태도를 보여준다 (Asencio Camacho 2005, 12). 이런 태도는 몇몇 정치 분야를 분노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카리스마적인 페드로 알비수 캄포스 (Pedro Albizú Campos)가 이끄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변호사이자 1922년에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당(Partido nacionalista)을 조직했던 그는 푸에르토리코가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한때 동지였던 루이스 무뇨스 마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만일 무장 충돌이 필요하다면, 그의 푸에르토리코 당원들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0월 초 민족주의당은 독립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그들의 최고위 군인들을 투옥하려는 정부의 비밀 계획을 알고 극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10월 30일 민족주의자들의 보루인 하유야(Jayuya) 중심가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봉기를 계획한다. 하유야 주민들과 함께 민족주의자들은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고 세 명에게 부상을 입힌다. 나머지 경찰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다 (Asencio Camacho 2005, 13).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공격을 감행했던 반란군들은 전화선을 끊고 우체국을 방화하고, 다른 그룹은 도시 광장을 점거하여 당시 불법이었던 푸에르토리코 국기를 게양한다. 점령자들은 감동적으로 “자유 푸에르토리코 만세!”를 외치면서 푸에르토리코가 자유공화국임을 선포한다.

그러자 미국 의회는 푸에르토리코에 계엄령을 신속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 파견을 승인한다. 제295보병연대는 기관총과 소총 이외에도 바주카포와 박격포를 사용하여 민족주의자들에게 반격을 개시한다. 하유야와 인근의 우투아도Utudado의 70퍼센트가 파괴되지만, 이런 소식은 철저히 봉쇄된다. 11월 1일은 반란의 절정으로 치닫는다. 다섯 명의 민족주의자들이 주지사 관저인 산타 카탈리나(Santa Catalina) 궁으로 점

근하여 그곳에서 무뇨스 마린을 살해하려고 기도한다. 그들의 기도는 네 명의 사망자로 끝을 맺는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워싱턴에서도 발생한다. 두 명의 민족주의자들이 해리 트루먼(Harry Truman)을 살해하기 위해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⁹⁾를 공격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침입자와 한 명의 보안요원이 생명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의 침입자는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는다. 1952년 그는 종신형으로 감형되고,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다(Asencio Camacho 2005, 14). 이런 민족주의자들의 사건은 무뇨스 마린의 연방주의를 ‘식민주의적 억살극’으로 규정하고 미 의회의 기준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고도의 책략이었다.

이렇듯 푸에르토리코에게 있어서 한국전은 단지 미군의 일원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다는 이유 이외에도 국내의 여러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 또한 그것은 루이스 마린 무뇨스 주지사가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의 자유연합주로 승인받으려는 정치의도와 함께, 낙후된 푸에르토리코에게 전진 자본을 유입하여 발전시키려는 고도의 경제적 책략도 숨어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IV. 『불과 공기』: 한국전쟁과 푸에르토리코의 내면적 실존

한국전쟁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는 『불과 공기』는 현대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하는 소설가인 엔리케 A. 라게레의 아홉 번째 소설이며, 1970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로사다Losada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소설은 푸에르토리코 내에서 훌륭한 평을 받은 작품이지만, 민족주의 진영 내에서는 약간의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푸에르토리코에서 혁명을 하는 대신 산토도밍고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가는 편을 택하기 때문이었다(Zayas Micheli

9) 현재 블레어 하우스는 미국의 영빈관으로 사용되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의 심각한 구조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1972, 261). 후안 마르티네스 카포(Juan Martínez Capó)는 이 작품을 “가장 훌륭한 예술적 성과이며, 가장 열정적인 선언”(Martínez Capó 1971, 20)이라고 여기고, 호세밀리오 곤살레스(Josemilio González)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탐구를 강조하면서 왜 주인공이 “자기가 일원이라고 느끼는 민중과 함께 푸에르토리코에서 싸우지 않고”(González 1971, 97) 다른 나라로 떠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콘차 멜렌데스(Concha Meléndez) 역시 정체성을 강조하고, “쓰라림과 절망으로 바라본”(Meléndez 1971, 8) 푸에르토리코의 현실과 불굴의 사회 비판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사야스 미첼리(Luis Osvaldo Zayas Micheli)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간행되는 1971년 7월 25일자 <라 프렌사 La Prensa>는 『불과 공기』를 “문학적 재주”를 보여주는 작품이며 “구체성과 보편성이 수렴되는 이미지와 상징을 적절히 관통한다.”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청년지> 12호는 『불과 공기』가 “라틴아메리카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건드리는” 작품이라고 말하며, 아르헨티나의 유력 일간지인 <라 나시온>은 1970년 9월 16일자 기사에서 이 소설을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를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소설로 간주한다(Zayas Micheli 1972, 262).

일반적으로 『불과 공기』는 엔리케 A. 아그레의 최고 소설이자 이전에 출판된 작품들의 총아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작품에는 이전 작품들의 사상과 기본 구조로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전 작품들이 1930년대의 상황을 다룬다면, 이 소설은 1950년대에 위치하면서 현재까지도 유효한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을 주인공의 강도 높은 내면적 성찰과 감정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점에서 『불과 공기』는 문학과 사회를 비롯한 모든 면이 녹아 있는 작품이며, 보편적 지평을 제공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전반적 현실을 포함한다.

이 작품은 주로 한국전쟁부터 1957년 사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이 시기는 자유연합주 사상이 민족주의의 모든 흔적을 질식시키려는 시기이다. 민족주의 정신이 억눌리면서, 병합주의 정신이 커져가는 시절인 것이다. 이 소설에서 한국전쟁은 주인공 페드로 호세

엑스포시토(Pedro José Expósito)와 관련되어 주로 나타나며 소설의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 전쟁은 주인공 페드로 호세가 뉴욕의 어느 푸에르토리코 가족의 집에 거처를 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 가족은 미국의 삶이라는 이상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푸에르토리코 인의 정체성을 거부한다. 그러자 뉴욕은 그에게 소비사회와 자본주의, 생산 체계와 ‘애국적 추행’으로 점철된 퇴폐적인 현실로 나타난다. 특히 ‘애국적 추행’은 한국전쟁을 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기 위한 것으로 변명한다(Laguerre 1970, 29).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인공은 “이런 환경의 비인간이고 내 ‘동포’들의 끔찍스러운 극단적인 가난에 가슴 아파.”(Laguerre 1970, 30)라고 말하면서 뉴욕의 비인간적인 면과 푸에르토리코 이주민들의 극단적인 가난을 되돌아본다. 그렇게 그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한국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현실을 고발한다. 하지만 이 소설은 외부적 현실의 묘사에 치중하는 19세기 리얼리즘 소설과는 달리 등장인물들의 내부 세계로 침잠하면서 현대소설의 모더니즘적 양태를 보여준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라게레는 등장인물들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내면적 삶과 융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는 내면 독백은 개인의 정신세계가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된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만, 주관적 렌즈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징병된 페드로 호세는 전쟁 캠프에서 삶에 대한 환멸적 생각을 구체화하면서 정신적 세계로 나아간다. 그의 외부적 삶은 어두운 어린 시절, 요양소에서의 삶, 요양소에서 나온 후 뉴욕에서의 삶, 그리고 한국전 징병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그에게 자살로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은 채(그는 가톨릭 교인이고, 따라서 자살을 거부한다.), 자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된다. 하지만 그는 그 전쟁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자기의 목숨을 헛되이 걸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 “한국. 그것은 산토도밍고, 베트남, 레바논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다. 우리는 목숨과 쓸모없는 인간들을 매매하는 장사치들에게 이끌려 이곳으로 왔다. 나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기 위해 단 하루를 사는 이런 벌레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보낸다. 안녕, 루스와 함께 보낸 속세의 천국이어……” (Laguerre 1970, 62)

한국에서의 임무가 끝난 후 페드로 호세는 뉴욕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는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인생의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후 페드로 호세는 자신의 조국인 푸에르토리코로 향하지만, 어릴 적의 희미한 기억에 남아 있는 푸에르토리코와 뉴욕의 관광안내소의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산후안의 실제 거리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에게 산후안은 미국의 이상을 보여주는 미니어처로 제시된다. 이후 그는 타베레스 가족의 마리아 루이사를 알게 되고 그녀를 통해 자신의 신원에 관한 단서를 발견한다. 그러자 그는 7년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의문을 조사하고 해결하게 산후안을 떠나 ‘라 페르가라’라는 곳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자신이 고아가 된 이유와 자신의 진짜 이름은 페드로 세라메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경악을 느끼자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는 갈망이 사라진다. 그곳 텍사스에서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모두 인간들의 오래된 거짓말이다. 인간의 육체는 단지 소화기관을 위장하기 위해 이용될 뿐이다. 그리고 양철 쪼가리 훈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Laguerre 1970, 264) 페드로 호세/페드로 세라메는 이런 인간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서 독재자의 독재를 전복하기 위해 게릴라가 된다.

이런 점에서 엔리케 A. 라게레가 이 소설의 제목으로 선택한 『불과 공기』라는 제목은 객관적 현실에서 주관적 현실로 나아가는 단계를 잘 보여준다. 먼저 이 작품은 객관성에 바탕을 둔 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악타이온의 개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소설의 6장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촛불 위로 컵을 들이대면서 촛불이 계속 켜져 있으려면 심지와 기름 이외의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이 작품은 정신적

인 내용으로 발전한다. 작중인물 중의 하나인 아달베르토 리나레스(Adalberto Linares)는 페드로 호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은 푸에르토리코에게 제공되는 연료야. 하지만 불이 탈 수 있는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 말은 내면의 불이 없다면 국민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소리야…… 아무리 많은 연료가 있더라도 정신이 질식해서는 살 수 없어.”(Laguerra 1970, 92)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역사를 잉태해. 무엇보다도 내면의 불이 있고 질식과 싸울 때에 말이야.”(Laguerra 1970, 92)라고 말한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물리적 불에서 정신적인 내면의 불로 나아가면서, 이 작품은 푸에르토리코의 역사적 현실,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이 바라본 한국의 현실, 그리고 작중인물의 심리적 현실을 뒤섞는다. 한국전쟁은 객관적 현실로 제시되지만, 주인공에게 자신과 조국의 물리적·정신적 빈곤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루이스 무뇨스 마린이 자유연합주 정책을 통해 공장을 세우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에 왜 푸에르토리코의 대표 작가인 엔리케 A. 라게레는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는 절대로 공장을 세우거나 외국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거리에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거나, 특급 호텔이 즐비하고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대규모 국제공항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가들이 대부분 자본주의나 도시화의 주변에 위치하며, 변화에 따르는 중류층의 불안감을 주로 서술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 사회변화에 대한 문제제기적 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 엔리케 A. 라게레는 자국민들의 내면과 심리를 되돌아보고자 하고, 한국전쟁은 바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상의 문학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엔리케 A. 라게레의 『불과 공기』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푸에르토리코의 병사들의 애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당시 루이스 무뇨스 마린이 추구하던 정책으로 말미암아 푸에르토리코의 지식인들이 겪고 있던 내면적 실존의 문제와 자본 사회의 주변화를 형상화하는데 한국전쟁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V. 『전쟁 전에』: 공식 역사와 비공식 역사의 대립

1970년에 출간된 『불과 공기』가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새로운 문학기법을 통해 실존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2005년에 발표된 호세안 라모스의 『전쟁 전에』는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서 주로 보여주는 공식 역사와 비공식 역사의 대립을 통해 공식 역사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한국전쟁을 이용한다. 이렇듯 두 가지 역사의 대립을 통해 이 소설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의 한국전 참전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자유연합주’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하위주체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숨겨진 역사를 잘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호세안(Josean)은 미군으로 자원하며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다. 그는 병영에서 전술과 군사(軍史)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지닌 베탕쿠르(Betancourt)와 대화를 나눈다. 베탕쿠르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베트남에서 찰리 보병중대가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잔혹함과 그 이미지를 즐기며 만끽한다. 게다가 그는 한국 전쟁에 관한 공식 역사도 읽었고, 파병군의 숫자와 무기들, 장교들의 이름 등등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역사를 모른다. 그것은 바로 푸에르토리코 병사들로 이루어진 제65보병연대의 역사이다. 그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쌍안경으로 전쟁을 보고 있던 미국 장교들의 지시에 따라 자살과 다름없는 임무를 띠고 파견된 부대였다. 베탕쿠르는 공식적인 출처에 의지한다. 반면에 호세안은 제65보병연대의 일원이었던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에 기초한다. 호세안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한국전쟁에서 미국군의 일원으로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이 어떻게 이용당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목숨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공식 역사를 “차갑고 기술적인 공식 역사, 그것은 전쟁 주역들의 극적인 상황을 숫자나 자료, 혹은 적의 사망

숫자와 같은 통계로 축소시킨다. 그것은 적들의 위치와 전략을 분석하는 역사이며, 쌍안경으로 전투를 주시하고, 리모컨으로 자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군들의 유명한 말을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다.”(Ramos 2005, 176-177)라고 생각한다. 이런 공식역사와 비공식역사, 즉 ‘또 다른 판본’의 대립은 푸에르토리코 군인들로 구성된 제65연대가 전쟁 내내 승리를 구가하다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켈리 고지와 잭슨 고지 전투 대목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베탕쿠르는 “이것에 관해서는 『휴전 텐트와 전선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라는 책이 있어. 이 책은 제65연대가 왜 제 색깔을 잃어버렸는지, 특히 켈리 고지와 이후 잭슨 고지의 치열한 전투 후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Ramos 2005, 175)라면서 공식적인 역사에 의존하여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푸에르토리코 병사들로 이루어진 부대의 역사를 1920년의 창설 시기부터 차가운 한국전쟁터까지 이야기하면서, 한국전쟁에서 그 부대의 명성이 추락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제65연대는 미국 제3사단의 일부로 최고의 명성을 누렸으며, 가장 훈련이 잘 되었고 일사분란해서 맥아더 장군이 침이 마르게 칭찬했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그러자 주인공 호세안은 그토록 용감한 군인들이 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제65연대가 왜 본래의 색깔을 잃어버렸느냐고 되묻는다. 베탕쿠르는 전선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연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만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자살과 같은 임무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리고 그런 임무에 이미 500명의 동료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베탕쿠르는 병사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그들의 행동은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라는 판에 박힌 말만 반복한다. 그러면서 그 이외의 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전쟁을 기술한 모든 역사가들 역시 동일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호세안은 베탕쿠르의 해박한 지식에 겁먹지 않고 이렇게 반박한다. “아직도 이야기되지 않은 수많은 역사가 있어. 만일 군역사가들이 기초 자료로 펜타곤의 동일한 기록과 그 결론을 사용한다

면, 똑같은 수밖에 없어.”(Ramos 2005, 177-178) 그러면서 호세안은 자기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베탕쿠르에게 반복한다. 특히 제65연대의 사기가 급속히 저하된 것은 켈리 고지에 25만 명의 중공군이 있었고 그 달에만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두려워서 아니라, 제65연대의 문제는 연대장인 코르테로 대령이 웨스트포인트 군사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대령 드가브르로 교체되면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베탕쿠르가 모르고 있던 은밀하고 결정적이며 공식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로 부임한 대령은 도착하자마자 고위 장교들과 논쟁을 하면서, 제65연대가 켈리 고지에서 비겁하게 싸우며, 군기가 빠져 있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고 비난했어. 그것은 제65연대 병사들이 다른 수많은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상반된 의견이었지. (……) 그리고 앞으로 제65연대 병사들이 스페인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도, 그들의 정신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드가브르DeGavre 대령은 진정한 사나이로 보이도록 수염을 깎으라고 지시했어. 그것은 바로 남성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대책이었지. (……) 제2대대장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런 방책은 수염을 문화적 의식의 일부로 여기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의 사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Ramos 2005, 180-181)

하지만 드가브르 대령은 이런 충고를 무시한다. 그러자 푸에르토리코 병사들 사이에는 반항 정신이 지배하고, 그들은 드가브르 대령이 최대 기한으로 설정했던 1주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염을 깎지 않다가, 마침내 군사법정에 명령불복종으로 재판받지 않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을 포기한다. 이 운명의 사건은 미군의 이름으로 참전하면서도 푸에르토리코의 문화적 정체성에 굳게 바탕을 둔 제65연대의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이 미국 속의 하위주체로서 어떤 인종 차별적 대우를 받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자 많은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은 가족과 가정을 떠나 그토록 먼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중공군 포대의 목표물이 되는지(Ramos 2005, 185), 그리고 왜 자신들의 희생을 고마워하지 않은 조국을 위해 그곳

에서 죽으려고 하는지 자문하면서 자신들이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¹⁰⁾.

이 소설은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는 미국 사법정책 아래서 미군에 의해 조종된 인종차별과 인종적 편견,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20세기 중반 푸에르토리코에 팽배해 있던 인종차별적 담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렇듯 제65보병연대와 그들의 역할을 읽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주 - 인종주의, 제국주의 부대에 있는 식민지의 부대 - 를 설정해주며, 또한 그런 읽기는 푸에르토리코가 한국전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전쟁 전에』는 공식역사와 비공식역사가 대립된다. 그러나 개인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주관적이고, 게다가 한국전쟁의 경우는 시간상으로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가 많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그런 역사가 오히려 진실로 판명될 경우도 많다. 특히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힌 미국 군부의 상황을 미군 역사가들이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서술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호세안 아버지의 개인 역사로 한정된 비공식 역사는 공식역사가 감추고 있는 또 다른 진실에 빛을 비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쟁 전에』에 등장하는 이 일화는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

10) 이후 제65연대의 제2대대를 임시로 맡고 있던 대위와 푸에르토리코 병사 수십 명이 체포된다. 그들은 적파의 전투를 기피하고 상관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다. 미국 고위 지휘관들은 한 치의 자비심도 베풀지 않으며 반응한다. 90명 이상의 병사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재판은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급히 변호인단이 구성된다. 그리고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기소된 모든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헛갈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과도하게 엄격한 형량(어떤 사람은 16년 형을 받는다)을 선고받는다.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언론은 자국 병사들이 겁쟁이와 탈영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고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이 불신과 고통으로 반응했다고 밝힌다. 불확정적으로 미국과 히스패닉이라는 두 개의 문화 속에서 강제로 움직이고 있던 푸에르토리코는 자신들의 정치·문화적 정책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이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언론은 새로운 국가 조직인 자유연합주가 시작된 시기에 미국에 의해 식민지적 주종관계로 전락하고, 인종차별적 의미가 불가피하게 포함된 문제 앞에서 루이스 무뇨스 마린 정부가 매우 불편해했다고 기록한다. (Curbelo 1992, 58) 또한 체 파랄리티시(Ché Paralitici) 역시 이 사건이 푸에르토리코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힌다.(Paralitici 2005-2006, 6)

고 평가하는 눈과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진 사실들을 재조명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VI. 「열 수 없었던 납 상자」: 식민국가의 애환

「열 수 없었던 납 상자」의 화자는 2년 전에 일어났던 몬초 라미레스(Moncho Ramírez) 유해의 도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납 상자 안에 유해가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면서 작품을 시작한다. 몬초 라미레스가 한국으로 떠난 지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몬초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몬초가 실종되었다는 편지를 받는다.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편지 내용을 알게 되자 마야 부인은 사흘 동안 울면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첫 편지를 받고 두 달이 되던 때, 다른 편지가 도착한다. 그 편지는 몬초 라미레스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자 마야 부인은 절규하고 실신한다. 그리고 세 달 뒤 도저히 열 수 없었던 납 상자가 도착한다. 소총을 어깨에 메고 하얀 장갑을 낀 네 명의 헌병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어느 날 오후 군용 트럭에 실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성조기로 뒤덮인 납 상자를 마야 부인의 집으로 가져간다. 그러자 마야 부인은 비명을 지르고, 억지로 그녀를 진정시킨다.

마야 부인은 아들의 관을 붙잡고 울부짖었고, 이후 그곳의 상황은 혼란스럽게 변한다. 마침내 사람들은 마야 부인을 침실로 데려간다. 그러나 마야 부인은 계속해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묻을 수 없다고 소리 지른다. 그러나 그 상자는 납으로 만들어져 밀봉되었기에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다. 그 다음날 몬초 라미레스는 장례식을 치른다. 이 모든 것이 2년 전에 일어난다. 그런데 이야기기를 서술하고 있는 바로 그날 아침 우편배달부가 란촌(ranchón)¹¹⁾으

11) 바라크와 흡사하게 생긴 길고 낮은 건물로, 수많은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로 편지를 가져온다. 바로 그의 징병을 알리는 편지이다.

「열 수 없었던 납 상자」에는 푸에르토리코 공동체의 삶이 잘 나타난다. ‘란촌’을 무대로 전개되는 이 단편소설에는 왜 몬초 라미레스가 한국전쟁에 파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작중인물들도 한국전쟁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북한과 남한의 구분도 없다. 아니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몬초 라미레스가 실종되었다는 편지를 받아 란촌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종합하는 화자의 말에서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몬초 라미레스의 실종에 관해 란촌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몬초가 틀림없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를 포로로 잡았을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석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우리 남자들은 란촌 현관 앞에 모여서 이런 두 가지 가능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몬초 라미레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리 자신들을 “실종자”와 “포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González 1997, 194)

과연 이런 서술 앞에서 독자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푸에르토리코의 대중들은 한국인은 한국인이지만 북한과 남한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이데올로기 투쟁은 위정자를 비롯한 정치권의 것일 뿐, 일반 대중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국방성이 무지한 푸에르토리코 대중들에게 영어로 편지를 보내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을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작가는 한국전쟁이라는 소재를 통해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식민지이며 따라서 푸에르토리코 국민이 미국의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모험의 희생양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몬초 라미레스의 징병 편지가 마지막으로 도착한다는 사실 역시 바로 미국의 이런 태도가 시대착오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이 작품의 쓰인 시대가 산업화운동(Operation Bootstrap),

한국전쟁, 그리고 대량 이민이라는 근대화의 세 얼굴로 점철된 푸에르토리코 민주당의 정책과도 연결된다. 사회주의자이며 독립주의자이며 거의 20년 넘게 푸에르토리코 정부에 의해 입국 금지 인물로 지목되었던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는 자유연합주 사상이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면서 승리를 구가하던 분위기를 이 짧은 단편에서 비판한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스승들은 당시 세계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던 어니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포크너, 존 스타인벡”(Díaz Quiñones 1997, v)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문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적 상황을 암시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와 미국의 공식 정책에 숨겨진 이면을 보여준다.

VII. 맺는말

지난 50년간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의 흐름을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개입을 소련의 세계 공산화 획책이라는 도전에 대한 미국의 응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소련의 세계적화야욕을 시작 단계에서 봉쇄하지 않으면 비슷한 도발이 반복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국은 남한을 지키고 소련의 적화야욕을 꺾기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 전쟁을 보면 미국의 성공적인 전쟁 개입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화가 방지될 수 있었다. 냉전이 격화되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의 한국전쟁 연구의 주류를 이루던 해석이었다(김남균 2000, 140).

그러나 이런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생긴다. 한국전쟁은 소련의 세계 적화라는 거대한 음모 속에서 발발했으며,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련이 주동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한국전쟁의 책임은 소련이나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국제 전쟁이 아니라 한국 내부 문제 때문에 발생한 내전이라는 소위 수정주의 시각의 출현이

다. 또한 전쟁이 발발한 원인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한 남침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수차에 걸친 교전을 거듭하다가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배경을 미국의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였다고 본다. 이런 커다란 미국의 음모라는 틀 속에서 미국의 사주를 받는 남한과 자주독립을 지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북한 김일성의 통일외지가 맞부딪혀 생긴 한국 내부문제였다는 것이다.

한편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들어오자 소련과 중국의 비밀문서들이 개봉되면서 한국전쟁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한국전쟁에 개입한 소련의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북한 단독으로 남침을 기도했다는 설이나 혹은 김일성이 주도했고 스탈린의 역할은 부수적이었던 등의 수정주의 학설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소련이란 배후 세력 없이는 김일성이 남침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한국 내부의 모순에서 발발한 것으로 보는 수정주의 해석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김남균 2000, 145-146). 즉 한국전쟁은 내전이 아닌 국제전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역사가들의 관점이라면, 소설가들의 관점은 사뭇 다르다. 특히 미군의 일원으로 자국의 병사들을 파견했던 푸에르토리코 작가들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이 느끼고 자각했지만 공식 역사 속에 배제된 이야기 - 가령 군대 속에서의 인종차별이나 문화적 정체성 탐구 - 를 서술하거나, 아니면 혹은 한국전쟁이란 소재를 통해 주인공의 물리적·정신적 빈곤을 강조하면서, 자국민들의 내면과 심리를 되돌아보고 지식인들이 겪고 있던 내면적 실존의 문제를 형상화하는데 사용한다.

이렇듯 한국전쟁에 대한 문학적 해석은 한국전쟁의 기원이나 국제적 의미, 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우리가 살펴보았던 엔리케 A. 아기레나 호세안 라모스, 그리고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의 경우는 영문도 모르게 파병된

푸에르토리코 병사의 경험을 통해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 탐구와 인종차별주의의 고발, 그리고 실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그리고 ‘전쟁’이라는 보다 큰 범주 내에서 작중 인물들이 겪는 고통을 소설 형식과 조화시키면서 참전을 합리화한 푸에르토리코 정부의 공식 담론을 해체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역사적 자료들을 소설 속에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대화적 상상력이 어떤 면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문학 연구에서 한국이 라틴아메리카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푸에르토리코 문학에서 한국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이런 학문적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및 치카노 문학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소재가 이미 끝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소재이며, 그것을 어떻게 보편화시켜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가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Abstract

Este estudio intenta dilucidar el significado de la Guerra de Corea dentro de la novelística contemporánea de Puerto Rico, cuyos soldados hicieron parte de las tropas norteamericanas en el regimiento 65 de la

12)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와 호세안 라모의 작품에 관해 최근의 신문과 잡지에서 접근되는 관점을 보면, 이라크 전쟁과의 관계 아래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Alternativa Latinoamericana* 문학면 책임자인 노라 페르난데스(Nora Fernández)는 “이라크 전쟁과 이유도 모른 채 그곳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한국전에 참가했던 푸에르토리코 병사에 관한 곤살레스의 이 단편(「열 수 없었던 납 상자」)은 미제국의 군사적 도발을 보여준다.”(Fernández 2006, 14)고 말하면서 이 작품을 재수룩하고 있다. 또한 제 과팔리티시 역시 호세안 라모스의 소설은 “스페인, 소련, 영국을 비롯해 자원이건 의무건 징병제도가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전개될 수 있다”(Paralitici 2005-2006, 2)라고 밝히면서 이라크 전쟁과의 관계로 확장시킨다.

infantería. Dentro de las obras puertorriqueñas que toman como material principal la guerra de Corea, se encuentran “Una caja de plomo que no se podía abrir”(1952) y “El arbusto en llamas”(1953) de José Luis González, varios cuentos incluidos en las obras como *El asedio*(1959) y *El proceso en diciembre*(1963) de Emilio Díaz Valcárcel, *El fuego y el aire*(1970) de Enrique A. Laguerre, *Los diablos de las montañas*(2002) de Jorge Feliciano Ruíz, *Antes de la guerra*(2005) de Josean Ramos, entre otras.

Al considerar la narrativa estadounidense, carente de producciones literarias sobre la guerra de Corea, puede descubrirse que los escritores puertorriqueños se preocupan por dismantelar la versión oficial a través de los personajes que cuestionan tanto su identidad como su existencia, dado que la intervención del gobierno en dicha guerra tenía fines políticos. Sin embargo, todavía casi no se ha realizado una indagación referente a este aspecto literario; por esta razón, este artículo pretende llenar ese vacío al revelar los rasgos característicos como la discriminación racial dentro del ejército, el drama de los protagonistas, la deconstrucción de la versión oficial que reduce a cifras, datos y estadísticas, el significado de la subordinación en la comunidad estadounidense, etc. en las obras de José Luis González, Enrique A. Laguerre y Josean Ramos.

Key Words: Korean War, War Literature, Puerto Rican Novels, Enrique A. Laguerre, Josean Ramos, José Luis González / 한국전쟁, 전쟁문학, 푸에르토리코소설, 엔리케 A. 라게레, 호세안 라모스, 호세 루이스 곤살레스

논문투고일자: 2008. 01. 15

심사완료일자: 2008. 02. 13

게재확정일자: 2008. 02. 29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2006), 『미군참전사』, 국가보훈처.
- 김남균(2000), 「미국 역사가들과 한국전쟁」, *미국사연구*, Vol. 12, pp. 137-159.
- 송병선(1997), 「역사와 역사의 소설화: 현대 중남미 역사소설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Vol. 10, pp. 181-197.
- 정연선(2003), 「중단된 聖戰: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소설의 연구」, 이기윤 외 엮음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국학자료원, pp. 159-193.
- 차경미(2004),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 Alvarez Curbelo, Silvia(1992), “A Meditation on the 65th Infantry”, *Puerto Rican History and Politics*, Vol. 4, No. 1, pp. 55-58.
- _____ (2004), “Batallas de identidad: Guerra, nacionalidad y ciudadanía en Puerto Rico”, www.clasco.org/wwwclasco/espanol/html/grupos/grupos/cultura/Alvarez%20curbello2.doc (2007. 04. 17 접속).
- Asencio Camacho, Luis(2005), “Saviors of the Cause: The Role of the Puerto Rican Soldier in One Man's Crusade”, www.valerosos.com/SaviorofTheCause.pdf (2007. 08. 27 접속).
- Báez Fumero, José Juan(1999), “Enrique A. Laguerre: Arte y teoría”, *Horizontes: Revista de la Universidad Católica de Puerto Rico*, Vol. 41, No. 81(Oct), pp. 133-157.
- Díaz Quiñones, Arcadio(1997), “José Luis González: La luz de la memoria” in González, José Luis, *Cuentos completos*, Madrid: Alfaguara, pp. iii-ix.
- Fernández, Nora(2006), “Rincón Literario”, *Alternativa Latinoamericana*, No. 72 (1월-2월), p. 14.
- González, José Luis(1997), *Cuentos completos*, Madrid: Alfaguara.
- González, Josemilio(1971), “Enrique A. Laguerre: *El fuego y su aire*”, *Sin Nombre*, Vol. 1, No. 4, pp. 95-98.

- Jacob, John(1997), "The Korean War in Literature", in Peck, David R. (ed.) *Identities and Issues in Literature*, Pasadena: Salem Press. <http://www.enotes.com/salem-lit/korean-war-literature.html>(2006. 12. 04 접속).
- Laguerre, Enrique A.(1970), *El fuego y su aire*, Buenos Aires: Losada.
- Lynn Coleman, Bradley(2006), "The Colombian Army in Korea, 1950-1954",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9 (January), pp. 1137-1178.
- Martínez Capó, Juan(1971), "La escena literaria", *El Mundo* (San Juan), 18 de agosto, p. 20.
- Meléndez, Concha(1971), "Visita a la Capilla Alfonsina y El fuego y su aire", *Sin Nombre*, Vol. 2, No. 2, pp. 5-12.
- Menton, Seymour(1993), *Latin American New Historical Novel*,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Paralítici, Ché(2005-2006), "Presentación del libro: Antes de la guerra", *Plaza Crítica*, Vol. 2, No. 1, pp. 1-6. <http://plazacritica.org/articulos/05-06/Antes%20de%20la%20guerra.pdf> (2007. 09. 09 접속).
- Puyana García, Gabriel(1993), *Por la libertad... en tierra extraña*, Bogotá: Banco de la República.
- Ramos, Josean(2005), *Antes de la guerra*, San Juan: Editorial Cultural.
- Ruíz Novoa, Alberto(1956), *El batallón Colombia en Corea, 1951-1954*, Bogotá: Imprenta Nacional.
- Schnable, James F(1990), 『韓國戰爭(上): 미국합동참모본부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 Tirado Mejía, Alvaro(1985), "Colombia: siglo y medio de bipartidismo" in Melo, Jorge Orlando(ed.), *Colombia hoy*, Bogotá: Tercer Mundo.
- Valencia Tovar, Alvaro(1992), *Testimonio de una época*, Bogotá: Planeta Colombiana.
- Zayas Micheli, Luis Osvaldo(1972), "El fuego y su aire: Síntesis del novelar de Enrique A. Laguerre", *Anales de Literatura Hispanoamericana*, Vol. 1, pp. 251-280.